

전북 불안지역 단층조사,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

- 지진 발생 관계 규명 등을 위해 당초 계획 대비 앞당겨 시행
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와 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, 기상청(청장 유희동), 원자력안전위원회(위원장 유국회)은 지난 6월 12일에 발생한 전북 불안 지진을 계기로 전북 불안군과 인접 지역의 단층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조사한다고 밝혔다.
- 그동안 지진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전라권은 당초 2027년 이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, 이번에 규모 4.8 지진이 전북 불안에서 발생함에 따라 단층검토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불안지역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추진한다.
- 행정안전부는 2027년 조사 예정이던 전북 불안군과 인근지역을 현재 진행 중인 지표단층 조사범위에 추가하여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고, 해양수산부는 당초 2027년 예정이었던 서남해 해역(부안 앞 바다)의 해저단층 조사 순서를 조정하여 2025년부터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.
- 또한, 기상청은 2032년부터 조사 예정이던 전라내륙의 지하단층도 2024년 하반기부터 조사하고, 지하단층 조사는 당초 2041년에서 5년을 단축하여 2036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년부터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원전(진양지로부터 42km 위치) 인근지역 지하단층을 조사하고 있으며,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의 단층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원전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.

□ 일반적으로 지진은 단층선을 따라 발생하므로 단층조사 결과는 국가 지진 방재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.

○ 이에 정부는 2016년 경주, 2017년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발생빈도, 인구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4~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단층조사를 추진하고 있다.

○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지표 변위가 있는 신생대 제4기*에 활동한 단층(지표단층)을, 해양수산부는 해저단층을, 기상청은 지하단층을,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전 주변의 지하단층을 조사하고 있다.

* 신생대 중 가장 최근 지질시대인 약 258만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의미

※ 지표단층: 과거 규모 6.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층

해저단층: 해양에서의 지표단층

지하단층: 지표면으로부터 5 ~ 20km 깊이에 위치하고, 현재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

□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“정부는 그동안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은 전북 부안군과 인접 지역의 지표·해저·지하 단층을 동시에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진발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”라며,

○ “관계기관과 함께 전북 부안군과 인접 지역의 단층조사를 조속히 추진해 지진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	책임자	과 장	우성우 (044-205-5180)
		담당자	사무관	최무진 (044-205-5185)
	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	책임자	과 장	임채호 (044-200-5350)
		담당자	사무관	장민철 (044-200-5353)
	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	책임자	과 장	박순천 (02-2181-0060)
		담당자	연구관	조은영 (02-2181-0063)
	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	책임자	과 장	임시우 (02-397-7281)
		담당자	사무관	안상준 (02-397-7288)

